

# 불우 형제 代父 된 동장님

### 광주 서구 농성 1동 김희환 동장 수감 친어머니 대신 5년 간 돌봐 “대학 합격 등록금 부족 안타까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죄로 복역 중인 친어머니를 대신해 수년 동안 두 자녀를 친자처럼 돌봐온 공무원이 있다.

광주 서구 농성1동 주민센터 김희환(60) 동장이 그 주인공. 김 동장은 살인죄로 복역 중인 L(여·49)씨의 자녀 C(18·광주 모 고교 3년)군과 동생(17·광주 모 고교 2년)을 5년째 돌보고 있다.

C군 형제에 대한 김 동장의 사랑은 친자식 이상이다. 3남매의 아버지가기도 한 김 동장은 이들이 희망을 갖고 학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매월 5만원씩 정기적금을 넣어주고 있다. 현재 적립된 돈은 200만원. 이 적금은 올해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 C군의 등록금으로 쓸 생각이다.

또 수시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C군 형제를 찾아 용돈을 주고 굶은 일을 대신 해주는 아버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들이 부자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9월 초. 당시 모 주민센터 동장으로 발령받은 김 동장은 관내 소년·소녀가장 16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식사라도 함께 직접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C군 형제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말수가 적은데다 애처로운 모습이 역력했다. 김 동장은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어 다음날 C군 형제에 대해 수문한 결과, C군의 어머니인 L씨가 1년여 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7년 형을 선고 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김 동장은 C군 형제의 아버지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 동장은 L씨에 대한 면회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C군 형제와 L씨의 면회를 다녀오는 등 남몰래 뒷바라지를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법무부와 교도소에 L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는 등 집안일처럼 힘을 썼다.

만기출소일이 2011년인 L씨는 교도소에서 제과제빵을 비롯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L씨는 김 동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매월 편지로 보내오고 있다.

하지만 김 동장에게 최근 걱정이 하나 생겼다. 며칠 전 C군이 중앙대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자신의 적금 만으로 비싼 등록금과 서울 생활비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6일까지 등록금을 못 낼 경우 입학 허가는 취소된다. 김 동장은 며칠 동안 독지기를 찾아 동분서주했지만 아직 만 나지 못했다.

김 동장은 “C군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데...”라고 안타까워하며 “C군 형제가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73년 화순군청을 시작으로 광주시, 서구청 등에서 35년간 ‘공복(公僕)’으로 일해온 김 동장은 내년 6월 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서구지역 소년·소녀가장 16명과 재매결연을 맺고 매달 사비를 털어 후원 하고 있는 농성1동 주민센터 김희환 동장. 김 동장이 5일 주민센터에서 C군 형제의 어머니인 L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법무부 등에 보낸 탄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학에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데...”라고 안타까워하며 “C군 형제가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조합돈 수억원 ‘꿀꺽’

### 전남경찰, 양만조합 전·현 직원 6명 입건

공금 횡령과 부정대출 등 각종 비리로 조합원인 어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호남지역 민물장어 양식조합 전·현직 직원 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조합 공금을 가로채거나 부정대출을 일삼은 최모(35) 전 대리 등 장어 양식조합 전·현직 직원 6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합원이 각출한 화재공제료를 빼돌리거나 조합원들에게 인지세, 감정료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50) 전 상무와 김모(47)·박모(40) 대리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대출이자 연체자 등 부적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쌍방보증이나 대출금 기간 연장 등을 주선함으로써 조합 및 조합원에게 4억3천400여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부당대출 행위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의 양식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연쇄 피해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백모(59) 전 상무이사와 또 다른 김모(35) 대리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출장비, 식비 등 업무추진 경비를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320여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류를 꾸며 24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화업사의 불건, 기도비 등 시주금 13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4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으나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중 체포됐다.

김씨는 “김씨가 끝난 공사를 새로 착공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문화재 보수업체의 명의로 빌려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 시주금 등 37억 빼돌린 前 화업사 주주 구속

문화재 보수공사 관련 보조금과 관람료 등 수억원의 돈을 빼돌린 구례지역 유명 사찰 전 주지가 검찰에 구속됐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국고보조금 24억원을 빼돌리고 사찰 시주금 및 관람료 등 13억원을 챙긴 화업사 전 주지 김모(5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화업사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해 국고보조금 전액을 공사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24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화업사의 불건, 기도비 등 시주금 13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4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으나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중 체포됐다.

김씨는 “김씨가 끝난 공사를 새로 착공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문화재 보수업체의 명의로 빌려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 노래방 여주인 살해 피의자는 내연남

### 개업 자금 5천여 만원 갚지 않아 앙심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5일 금전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전 내연녀를 살해한 주모(49·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서구 관천동 S 노래방에서 주인 김모(여·49)씨의 머리 등을 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범행 직후 김씨가 업소용 냉장고에 깔려 사고사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냉장고를 바다에 쓰러뜨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직 노동자인 주씨는 3년 전 지인 소개로 김씨를 만나 사귀어 오다 최근 결별했으며, 이후 S노래방 개업(2007년) 당시 빌려준 돈 5천500만원의 상환을 요구했지만 갚지 않고 면박을 주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씨는 경찰에서 “김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냉장고가 김씨를 덮쳐 일어난 사고”라며 범행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사라진 주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휴대전화 추적 끝에 주씨를 붙잡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노래방 여주인 살해 피의자는 내연남 개업 자금 5천여 만원 갚지 않아 앙심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5일 금전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전 내연녀를 살해한 주모(49·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서구 관천동 S 노래방에서 주인 김모(여·49)씨의 머리 등을 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범행 직후 김씨가 업소용 냉장고에 깔려 사고사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냉장고를 바다에 쓰러뜨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직 노동자인 주씨는 3년 전 지인 소개로 김씨를 만나 사귀어 오다 최근 결별했으며, 이후 S노래방 개업(2007년) 당시 빌려준 돈 5천500만원의 상환을 요구했지만 갚지 않고 면박을 주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씨는 경찰에서 “김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냉장고가 김씨를 덮쳐 일어난 사고”라며 범행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사라진 주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휴대전화 추적 끝에 주씨를 붙잡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다 좋은 건축·산업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배삼홍씨, 병원비 1억여원 갚아라!”

# 상나팔

○법원이 거액의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피소된 원로 코메디언 배삼홍(83)씨에게 밀린 병원비를 모두 내라고 판결. ○서울 동부지법 민사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5일 서울아산병원 이 배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배씨 등은 서울아산 병원에 1억3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

○배씨는 병원측이 “밀린 입원비를 내지 않을 경우 부득이(강제퇴거 등) 법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아들과 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심경을 표명.

○배씨는 흡인성 폐렴으로 2007년 6월 서울 목동에서 쓰러진 뒤 1년 6개월 이상 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진료비 체납으로 지난해 8월 병원측에 의해 피소. /연합뉴스

# 김재균 의원 의원직 유지 향소심서 벌금 90만원

광주교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한주)는 5일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에 대한 향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누락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확정 선고를 받을 경우 형을 유지할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임의 퇴원 환자 암 통보 못한 의사 무죄”

### 광주지법 형사3부

암(癌) 의심환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퇴원할 경우 뒤늦게 암 선고를 받았더라도 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형원)는 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화순지역 모 병원 내과 전문의 A(37)씨에 대한 향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의사인 A씨가 X-레이 판독 결과를 미처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

가 임의로 퇴원하는 바람에 폐암이 의심되는 병세를 설명하지 못했던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고열, 복통 등의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온 서모(여·57)씨를 상대로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장염과 폐결핵 등이 의심된다’며 입원을 권했다.

그러나 서씨는 이른날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퇴원했다가 9개월 후 모 대학병원에서 암 말기판정이 나오자 A씨를 고소했다. 서씨는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투병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용안정 기업지원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1. 고용유지 지원금, 2. 고용유지 지원금, 3. 고용유지 지원금
- 신입직원 지원금 지급: 1. 신입직원 지원금, 2. 신입직원 지원금, 3. 신입직원 지원금
-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 1. 유급휴가 지원금, 2. 유급휴가 지원금, 3. 유급휴가 지원금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